

흥국생명 vs 기업은행...둘 중 하나는 치명상 입는다



오늘 1라운드 최종전서 연패 탈출 총력
공격력 부족·세터 약점 등 불안 노출

‘여사 팀이든 패하는 팀은 치명상을 입는다.’
여자 프로배구 디펜딩 챔피언 흥국생명과 올해 여수·농협컵(컵대회) 우승팀 IBK기업은행이 7일 오후 7시 경기도 화성체육관에서 1라운드 마지막 대결을 벌인다.
4연패에 빠진 5위 흥국생명과 3연패 중인 최하위 기업은행엔 물리칠 수 없는 ‘벼랑 끝 대결’이다.
2024-2025시즌 통합우승을 차지했던 흥국생명은 ‘배구 여제’ 김연경 은퇴 후 첫 시즌 초반 고전하고 있다.
지난 달 18일 정관장과 시즌 개막전에서 3-1로 이겼지만, 이후 현대건설(1-3 패), 한국도로공사(2-3 패), GS칼텍스(2-3 패)에 잇달아 털리기를 잡혔다.
이어 지난 2일에는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던 페퍼저축은행에 0-3으로 충격적인 셋아웃 패배를 당해 4연패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일본인 사령탑 요시하라 도모

코 감독을 영입하고,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최대이었던 미들 블로커 이다현을 잡았음에도 김연경 공백을 절감하며 ‘승점 자판기’로 전락했다.
부상으로 코트를 비운 주전 세터 이고은을 대신해 서재현과 실업팀에서 뛰던 베테랑 이나연을 영입해 기용하고 있으나 세터 약점을 드러내며 공격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이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가세한 레베카 라센(등록명 레베카)은 기대했던 화끈한 공격 배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무릎이 좋지 않아 개막 초반 결장했던 아시아 쿼터 미들 블로커 아날레스 피치(등록명 피치) 역시 ‘복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윤주와 김다운, 최은지, 박민지가 주축을 이룬 아웃사이드 히터진은 리시브 불안을 노출하며 공수 모두 기대 이하다.
정윤주는 페퍼저축은행전에서 4점을 사냥하는 데 그쳤고, 김다운은(5점)과 최은지(2점)도 한 자릿수 득점에 머물렀다.

기업은행의 상황도 좋지 않다.
공수에서 살림꾼 역할을 해줘야 할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이소영이 훈련 중 어깨를 다쳐 장기 결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고질적인 세터 불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 4일 현대건설전에선 박은서와 김하경, 최연진 3명의 세터를 모두 가동하고도 0-3 완패를 당해 3연패 중이다.
올해 컵대회에서 9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 올린 뒤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 때 ‘우승 후보’ 투표에서 물표를 받았던 팀으로선 참담한 성적표다.
지난 시즌 득점 부문 2위에 올랐던 외국인 주포 빅토리아 단착(등록명 빅토리아)과 베테랑 리베로 임명옥이 공수에서 분투하고 있음에도 아시아 쿼터 알리사 킨켈라(등록명 킨켈라)와 토종 공격수 옥서영이 제 몫을 못 해주고 있어서다.
기업은행은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흥국생명을 제물로 3연패 사슬을 끊고 팔짝 탈출을 노리기 때문에 총력전을 다짐하고 있다.
양 팀 승부에선 지난 2021-2022시즌 기업은행에 몸담았지만, 시즌 초반 방출당했던 레베카가 친정팀의 빅토리아와 외국인 주포의 화려 대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관심거리다. /연합뉴스



지난 2024-2025시즌 기업은행과 흥국생명 맞대결 장면. <한국배구연맹 제공>

‘600경기 출전’ 임명옥, V리그 여자부 최초 기록 세운다

여오현 코치 이어 2번째

여자프로배구 ‘최리(최고의 리베로)’ 기업은행 임명옥이 V리그 여자부 최초의 600경기 출전 금자탑을 세운다.
임명옥은 지난 4일 현대건설전에 나서 개인 통산 599경기를 채웠고, 7일 흥국생명전에 출전하면 600경기를 기록한다.
여자부 최초의 기록이며, 남녀부 통틀어 현 IBK 기업은행 코치 여오현(625경기)에 이어 두 번째다.
임명옥은 V리그 출범 연도인 2005년 KT&G(현 정관장)에서 1라운드 3순위로 데뷔했다.
2015-2016시즌 한국도로공사로 이적해 커리어를 이어간 그는 2025-2026시즌에는 IBK기업은행 유니폼을 입고 22시즌째 코트를 지키고 있다.
실력과 꾸준함이 만든 기록이다.

임명옥은 2010-2011, 2013-2014시즌 수비상을 수상했고, 2019-2020시즌부터 2024-2025시즌까지 6시즌 연속 베스트7 리베로에 선정됐다. 출범 20주년이던 지난 시즌엔 ‘20주년 베스트7 리베로’에도 이름을 올렸다.
지표도 탄탄하다. 데뷔 후 리시브 효율이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고, 2015-2016시즌부터는 매 시즌 50% 이상을 유지해 왔다. 특히 KT&G 2009-2010, KGC인삼공사 2011-2012, 한국도로공사 2017-2018-2022-2023까지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기록했다.
임명옥은 “단순히 오래 뛰어서가 아니라 부상 없이 기량을 유지해 쌓은 기록이라 더 자랑스럽다”며 “후배들이 몸 관리와 경기력을 꾸준히 끌어올려 나의 기록을 넘어서는 선수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연수 기자 training@



한국시리즈 끝나도 야구는 계속된다...한국 대표팀 평가전

8~9일 체코·15~16일 일본
체코와 1차전 선발은 박빈

프로야구 2025시즌이 10월 31일 LG 트윈스의 통합 우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11월에도 야구는 계속된다.
8일과 9일 이틀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K-베이스볼 시리즈 한국과 체코의 국가대표 평가전이 열리고, 15일과 16일에는 우리 대표팀이 일본 원정을 떠나 도쿄에서 일본 국가대표와 2연전을 벌인다.
이번 국가대표팀 경기는 2026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일본과 체코는 일본에서 열리는 WBC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조에 편성된 나라들이다.
9월 세계 랭킹으로는 일본이 1위, 한국 4위, 체코는 15위다.
체코와 2연전을 대비해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지난 2일 소집돼 훈련을 시작했다. 한국시리즈까지 치른 LG와 한화 이글스 소속 선수들

은 4일 대표팀 훈련에 합류했다.
체코와 1차전 선발 투수로는 박빈(두산 베어스)이 내정됐다.
박빈은 올 시즌 19경기에 나와 5승 7패, 평균자책점 4.20을 기록했다.
2024년 15승 9패, 평균자책점 4.24와 비교하면 주춤했다. 올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옆구리 근육 부상 때문에 6월 초가 돼서야 처음 출전했다.
류지현 감독은 “마지막으로 실전 등판한 지 한 달 넘게 지나 감각 회복이 필요하다”고 박빈을 선발로 낸 이유를 설명했다.
박빈은 물론 야수들도 한 선수가 오래 뛰게 하기보다 여러 선수를 고루 기용하며 승패보다 컨디션 점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체코는 우리보다 세계 랭킹은 아래지만 올해 유럽선수권에서 처음으로 3위에 오르는 등 최근 상승세가 돋보인다.
2023년 WBC 조별리그에서도 우리나라와 한 차례 맞붙어 한국이 7-3으로 이겼다.
당시 파벨 하딤 감독은 본업이 의사였고, 선수들도 소방관, 교사, 부동산업 등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화제가 됐다. /연합뉴스



박빈

‘배구명가’ 삼성화재, 30주년 기념 이벤트

8일 KB손해보험 홈경기 선물 증정·경품 행사

남자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창단 30주년을 맞아 팬 감사 이벤트를 연다.
삼성화재는 오는 8일 오후 2시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리는 KB손해보험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홈경기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 증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1995년 11월 7일 창단해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이한 삼성화재는 경기장을 찾는 선착순 3000명에게 ‘30주년 기념 열쇠고리’를 선물할 예정이다.
경기 시작 전에는 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케

이크 커팅·시구 행사가 열리고, 경기 중에는 이벤트를 통해 ‘삼성 갤럭시 워치8’, 선수 친필 사인 레플리카 등을 제공한다.
경기 종료 후에는 주점으로 ‘삼성 갤럭시 Z 폴드7’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티켓은 전 권종 30% 할인 판매하며, 경기장 내 코보마켓에서는 구단 굿즈 30% 할인 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창단 이후 전성기를 이끈 레전드 멤버들도 현장을 찾아 팬들과 30주년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박연수 기자 training@



‘45세 현역’ 윌리엄스, 2026시즌도 뛴다

내년 1월 WTA ASB클래식 출전

비너스 윌리엄스(45·미국·사진)가 2026시즌에도 선수로 코트를 누빈다.
AP통신은 6일 “윌리엄스가 2026년 1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ASB클래식에 출전한다”고 보도했다.
1980년 6월생인 윌리엄스는 이로써 33시즌째 WTA 투어에서 활약하게 됐다. 윌리엄스는 1994년 WTA 투어 대회에 데뷔했으며 이후 해

마다 최소한 2개 이상의 대회에 출전했다.
윌버턴 여자 단식에서만 5번 우승하는 등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7차례 정상에 오른 윌리엄스는 현재는 단식 세계 랭킹 570위까지 내려가 있다.
ASB 클래식에서도 자력으로는 출전하기 어려워 와일드카드 자격으로 나간다.
윌리엄스는 2023년 윌버턴 이후로는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열리는 대회에만 출전했다.
2026년 첫 대회를 뉴질랜드에서 시작하면서 윌리엄스는 2026년 1월 개막하는 호주오픈 출전 가능성도 커졌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전시지원 공모전시

찾그릇에 뜬 달 : 김기현×정우식

일시 : 2025-10-31(금) ~ 2025-11-30(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400회 정기연주회

‘혁명가들’

일시 : 2025-11-14(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